

유통업계 “중국 알리·테무 공세 위협”

광주상의 47개 소매유통업체 조사 70% “유통시장 경쟁 심화시킬 것” 영세업체들은 대응 방안도 못찾아

알리와 테무 등 자본을 앞세운 중국 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한국시장 진출에 지역 소매유통업체도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조차 ‘C-커머스’라고 불리는 중국 기업의 저가, 몰량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대응 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가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63.8%가 매우 위협적 혹은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4%, ‘위협적’이라고 답한 업체는 29.8%였다.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C-커머스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29.5%가 ‘매우 심화시킬 것’, 40.4%가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습격’에도 응답 업체 대다수는 대응방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한 업체는 40.4%, ‘대응하고자 하나 마땅한 대응 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7.7%였다.

C-커머스 한국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영세한 업체 사정상 별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올 2분기 경기전망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업체들의 2024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지수(RBSI)는 ‘80’으로 전 분기 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R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특히 2분기의 경우 계절적 영향으로 소비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보다 RBSI가 낮았다. 기업들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심리로 인해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다음 분기 경영활동 시 우려되는 가장 큰 예외사항’으로 ‘높은 소비자 물가 지속’(38.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상승’(17.0%), ‘시장경쟁 심화’(14.9%), ‘고금리 지속’(12.8%), ‘중국 온라인플랫폼 국내 진출 확대’(8.5%), ‘경기침체 등 기타’(8.5%) 등 순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2분기는 기업들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기이지만, 체감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에 따른 업계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등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유통업 규제 완화 등 정부차원의 대응 및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침구류 프로모션 다양한 브랜드 30~50% 할인

광주신세계는 다양한 브랜드의 침구류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우선 분관 8층에 마련된 ‘힐리침대’ 팝업스토어에서 오는 14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세계 단독상품인 ‘헤리티지 1881’ 모델을 35%, 신상품 프레임은 30% 할인가에 선보인다.

‘템피’는 창립 13주년을 기념해 오는 21일까지 본관 1층에서 팝업 매장을 열고, 프레임과 모션 등을 20% 할인 판매하며 5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방수커버, 700만원 이상 구매 시 방수커버와 매트커버를 함께 증정한다. 토탈 리빙브랜드 ‘로라에슬리’도 할인 프로모션에 동참한다.

본관 8층 ‘로라에슬리’는 오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침구류 등 특가 한정상품들을 최대 반값에 선보인다. 대표상품 엘라모달 간절기 쉐어 사이즈 이불을 기존 판매가(33만8000원)보다 50% 할인된 16만9000원에 판매한다. 또 로라에슬리는 15일부터 28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열고 가구, 인테리어



어 소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김영민 광주신세계 식품생활팀장은 “최근 신학기 학업에 적응하는 자녀들의 신체적·심리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침실 인테리어 교체와 고민하

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광주신세계가 준비한 침구류 할인 행사를 활용해 싸고 간편하게 침실 인테리어를 교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삼성전자 소외계층 ‘AI 무풍 벽걸이’ 공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삼성전자는 전국 에너지 소외계층 1만8000세대에 ‘AI 무풍 벽걸이’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폭염 등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4월부터 전국 약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1만8000여 가구에 고효율의 ‘AI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무풍 모드 사용 시 MAX(최대) 냉방 대비 최대 77%까지 절감할 수 있는 ‘AI 무풍 벽걸이’는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무풍 벽걸이’는 무풍 모드 사용 시 MAX

(최대) 냉방 대비 최대 77%까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강력한 급속 냉방으로 온도를 낮춘 후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무풍냉방으로 냉기를 유지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또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추가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오지오 부사장은 “고효율의 ‘AI 무풍 벽걸이’ 에어컨을 생산부터 설치까지 적기에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삼성전자 에어컨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고객’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6월 30일까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광주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개인 고객으로, 전년에 해외송금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로화에 대해 해외송금 시 이용 가능한 환율우대 90%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 미화 1불 이상 송금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해당 고객이 외화 예·적금 가입 시 5000원 상당 커피쿠폰을 추가 증정한다.

관련 업무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와

뱅크 앱,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처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광주은행 외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광주은행은 향후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철 맞은 흑산도 홍어 맛보세요”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흑산도 홍어와 동동주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광주점은 오는 11일까지 지하 1층 식품행사장에서 국내산 홍어를 선보이는 ‘홍어 대축제’ 행사를 진행한다. 흑산도수협이 원산지 증명코드를 발급한 흑산도산 홍어(100g·1만5000원), 국내산 생물 홍어(100g·1만 1000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막걸리 행사도 진행한다. /장윤영 기자 zj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17.65 (+3.44)
↓ 코스닥	860.57 (-11.72)
↑ 금리(국고채 3년)	3.383 (+0.054)
↑ 환율(USD)	1353.20 (+0.40)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